

일 침

一針

십자가, 고난, 순종, 희생, 회개, 죄, 음란, 혼전순결, 주일성수, 투기, 거짓말, 도둑질, 이혼, 정치, 책망, 自殺, 동성애, 지옥, 눈물, 마귀, 대적... 이상은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설교 주제들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모으기 위해 가급적 해서는 안 되는 설교와 가급적 많이 해야 되는 설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설교는 그렇지 않아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일침 한방!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똥침 큰 것으로 한방!**

글/최용우

글씨/ 정민 지음 <일침(一針)> 김영사 펴냄 책 표지에서 복사

드림꽃편지 519

2012.4.4 청명호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1.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며, 장차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2.교회는 ‘말씀’을 드러내어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입장하도록 안전하게 안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3.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다가 ‘말’만 듣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말만 많은 교회는 시끄럽고 어수선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말씀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 설교는 ‘말’(언어)이지 ‘말씀’이 아닙니다.

4.‘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요1:14)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눈, 코, 입, 귀 다 있고, 달릴 것 다 달리고, 들어갈데 들어가고, 나올 곳 다 나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숨쉬시고 밥드시고 땀 싸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리얼한 ‘말씀’입니다.

5.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들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입니까? 물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말’로 ‘말씀’을 만들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지 ‘말씀’그 자체는 아닙니다.

6.자! 이제 글이 더 길어지기 전에 ‘말씀’을 만나는 방법을 서둘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온 사방 천지(자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7.그래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의식이 깨어나면, 참새들이 전하는 하나님 이야기, 꽃들이 속삭이는 예수님 얘기, 시냇물이 찬양하는 소리, 심지어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나를 향해 ‘정신차려 이 사람이!’하고 소리치는 소리도 리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통해 하시는 리얼 쟁목소리 생명의 ‘말씀’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요1:4)

♡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최용우 올립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나 행복이 넘칩니다.
주님을 경배할 때 나 웃음이 넘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은 나의 주 영원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사랑 한없는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감사 계속되는 나의 감사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찬양하네. 나의 아버지 아버지
오! 찬양찬양 내 생명 되신 주님 찬양

내게로 오라

오라! 수고하는 사람들아 오라
오라! 무거운 짐 진자들아 오라
오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아 오라
오라! 연약한 자들아 오라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짐 진자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러 주셔서 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11:18-30)

여인들이 찬양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기뻐 찬양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찬양합니다.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며 찬양합니다.
귀신 나간 딸을 붙잡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찬양합니다.
흥악한 귀신들린 딸을 데리고 와 주님을 만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보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찬양합니다.

마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마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돌로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다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롯 유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파송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고통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비난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손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핍박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겠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이기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겠나이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오늘 어느 곳으로 나아가라 하실 지
주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그 어디라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어디 있나

큰 예배당에 거룩한 무리들이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예수를 보여주는 이 어디 있나?

시커먼 양복 정장에
기름발라 머리 넘긴 멋쟁이 목사님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유창한 웅변을 할 때에
예수를 보여주는 이 어디 있나?

홍청망청 제 배만 불리는 성도들아
이웃도 형제도 돌아보지 않고
홀로 앉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아
속이 썩어 문들어진 성도들아
예수를 보여주는 이 어디 있나? ©최용우

[깔깔깔] 돈들의 대화

천원짜리 지폐와 만원짜리 지폐가 지갑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 동안 잘 있었어?” 만원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도 가고, 백화전도 가고, 유럽선 여행도 했지. 너는?”

그러자 천원짜리가 대답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교회, 교회, 교회!”

정신병원 쓰레기통

지난 여름 어느 날, 경기도 축령산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본관 1층 로비에 앉아 있었다.
면회 온 사람들과 상태가 좋아진 환우(환우)들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로 쓰레기통이 눈에 띄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다.

“좀 지저분하구나?”

“내가 명색(名色)이 쓰레기통 아니냐?

지저분 한 게 내 본분(本分)이지.

만일 내가 지저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아닌거다.”

“그래도 깨끗이 치워져 있으면 지금 보다는 나을텐데...”

“자네가 보기에는 그럴는지 모르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깨끗하니까...”

“네가 언제나 깨끗하다고?”

“그렇다. 나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맑고 깨끗한 모습을 조금도 잃지 않았
다.”

“방금전에 너는, 지저분한 게 내 본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지.”

“그렇다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셈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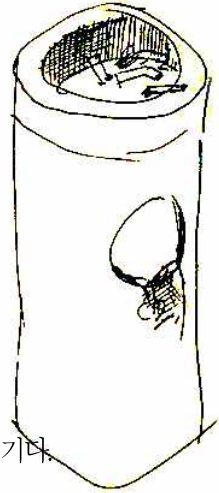
“옳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한다. 나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존재면서, 그것
이 내 본분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깨끗하고 맑은 존재다. 사람들은 대개 사
물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저분한 나 밖에 모르지만 담배꽂초와 휴지조각과 가
래침 따위가 덮고 있는 나의 속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 몸인지 알 것이
다.”

“.....?”

“의심스럽거든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몸을 닦아 보아라.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
의 그 빛나고 깨끗한 몸이 자네 눈앞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내 본디 몸
이다.”



“.....”

내가 말을 잊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쓰레기통이 계속 말했다.

“여기 입원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저들의 걸모습만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한 거품 벗기고 보면 모두가 나리꽃처럼 곱고 순결한 영혼들이다. 내가 이 자리에 놓여 있어서 쓰레기를 담음으로써 그만큼 이 부근을 깨끗하게 만들 듯이 저 사람들도 세상의 온갖 정신적 쓰레기를 자기 몸에 담아서 그만큼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 또한 정신병을 만들지 않는다. 쓰레기통은 쓰레기가 아니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 또한 정신병이 아니다. 네가 이 비밀을 머리만으니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

“그러면 어째서 성인(聖人)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물을 버리지 않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

“.....”

“.....”

“말이 나온 김에, 지금의 자네로서는 소화하기 힘들만한 진실 하나를 더 말해줄까?”

“.....”

“깨끗한 것은 나 뿐만이 아니다. 내 몸에 지금 담겨 있는 담배꽂초, 가래침, 휴지 뭉치도 모두 깨끗한 담배꽂초, 깨끗한 가래침, 깨끗한 휴지뭉치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서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간의 의식(意識)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사람을 두고 깨끗하다느니 더럽다느니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닐는지 모르나 진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등견예정(等見穢淨)이라, 더러움과 깨끗함을 한가지로 본다고 했다.”

“.....”

“.....”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물을 볼 때마다 마음으로 보아서 주의 깊게 보아라. 깊이 보아라. 그렇게 주의 깊게 볼 때 너는 내가 보는 사물과 함께 깨어나게 된다. 그런 일을 되풀이하여라.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여라. 하루아침에 비밀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물을 주의 깊게 바

라볼 때마다 그것들의 입을 빌려 내가 너에게 주는 명(命)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 하여라. 방금 전에도 나는 쓰레기통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짓지 말라고 했다. 일어 들었거든 그대로 하여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대화는 끝났다. 며칠 뒤 나는 베트남의 망명스님 티크 나트 한의 글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거든 당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저 구름 보이지? 얼마나 장엄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씨앗에 매일 물을 줄 것인가? 기쁨을 배양(培養)하기, 사랑을 실습(實習)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에너지를 지닐 때 우리는 이런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 어떻게 아름다운 가을의 황금 들녘을 볼 수 있겠는가? 내리는 비의 기쁨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비가 내리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비에게 미소짓는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비가 반드시 필요한 생명(生命)의 한 부분임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다시 미소짓는다. 주의를 기울이는 일(mindfulness)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낙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Thich Nhat Hanh. pp.190-191 ©이현주



로그인 회원가입 서약소개 후원 책 목록 메일 홈거항시 시작페이지

<http://cyw.pe.kr>
[매월유대동화](#)
[자료실교전도](#)
[기도현양성경](#)
[사진](#)
[대경마루](#)
[仁南齋](#)
[알림](#)
[쇼핑\(shopping\)](#)

[햇볕모음](#)
[독수공방](#)
[따뜻한밥상](#)
[꽃은대로가사](#)
[과와문](#)
[꿈고모음](#)
[꽃새와도독](#)

제 4323호 2012년 9월 27일에 띄우는 사친상복발품차례책지 <이전1다음> 지난호

작지만 큰 소원

주님!
오늘도 머뭇과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은 좋은 하루 나쁜 하루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제 마음속에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제 눈 속에 있을 뿐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상반해 있지 않고 제 입술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 주님, 부디 제 안에서 주님이 주인노릇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희망을 하든 절망을 하든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제 입으로 말씀하시고, 제 손으로 하고 싶은 일
을 하시고, 제 발로 가고 싶은 산 곳으로 가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달라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그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
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주님이 제 손가락을 이용하여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
고 있습니다. 제 머릿에서 이전 글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최용우 more... 이 글에
공감하시면 손가락 포스터를 불러 주세요 < >

☀ 이메일 꼭꼭 주시면 매일 아침 따뜻한 마음의 밥상을 차려서 정성껏 보내드려요.

이름 이메일 등록하기 구독자: 1415명

바깥
☑ 미완주 1585 <0A> 구형군요/신앙과자성경중에서 <이날은>

☑ 거센 풍랑 속에서 주무시디디나요?(마8:23-27)

“거센 풍랑에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나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여윈 것이지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아야겠네. 성인(聖人)은 행불연(行不亂)을 중(重)히 하더라. 성인은 말 없이 가름임을 배운다 하지 않겠나? 예수께서는 풍랑속에서 주무심으로써 믿음이란 말 없이 가름임을 제자들에게 알렸어. 가르치셨던 것일세.” @이현주 (목사)

주기살기로 전도하자-저절로 전도가 되는 주보?

주기살기로 전도하자!
저절로 전도가 되는 전도주보로...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고급형 inside에와

플리스 에와
최용우 저 (480원)

두란노 OT특성집
<성령의 삶> 17개 분
량 단행본 최고급
인기에 화 450원모음

게소션케어 전문적
원근(원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최신글/모든 게시글 모음

- 위를꺼리 말씀과 소망, 사랑의
- 애틍을러 세 가지 행복
- 성경쓰기 디디일 7주
- 성경말 만주한 하루를 위한 10
- 동영상 [김대형 주일] 요셉의 10
- 동영상 [김대형 주일] 희망을 논
- 동영상 [김대형 주일] 하나님과
- 동영상 [김대형 주일] 너의 허
- 신상 새 만남과 박락드립니다.
- 애화 모음 1권 < >

인기글(7건)

- 햇볕모음 새 가지 만남
- 애화 죽음의 힘
- 애화 아름다운 가지 1권
- 애화 마음의 힘
- 애화 미국생활의 힘 < >
- 성경 65년간 성경 670분 원어5
- 설교 조금들을 읽히는 최고 비
- 애화 나를 강하게 하는 힘 1권
- 애화 충서의 힘
- 애화 사랑의 힘

최선명글

- 율타리에는 개나리가 꽃말...
- 율타리에는 개나리가 꽃말...
- 비밀 일입니다.
- 말밭의 모음이 우습습니다...
- 그대도 세상은 돌출일, 후...
- 지도 부신에서 고등학교...
- 나/비/비/누르/누르/살...
- 함께 소리를 낼 때는 모...

햇볕같은이야기 <http://cyw.pe.kr> <http://cyw.co.kr> <http://cyw.kr>



53. 골고다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주간에만 묵상해야 하는 연중행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난의 현장인 골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 지구뿐만 아니라 대 우주 빅뱅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의 현장은 '골고다'입니다.

54. 채찍의 십자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심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순간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55. 창이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이53:4)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는 로마 병사에 의해 확인 사살 된 상처이며, 의심 많은 도마에 의해 부활이 확인된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창에 찔린 자국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56. 면류관의 십자가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이름의 뜻이 면류관 입니다. 의의 면류관(딤후4:8) 썩지 아니할 면류관(고전9:25) 기쁨의 면류관(빌4:1) 영광의 면류관(벧전5:4) 생명의 면류관(약1:12)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계2:10) 그 여섯 개를 모두 합한 면류관이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입니다. ©최용우

□ 매일아침 차 한잔 하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 이야기



신령한 예배시간이 되려면

왜 예배는 재미없고, 기도시간은 지루하고, 설교시간은 내려오려는 무거운 눈꺼풀과 들어 올리려는 나의 의지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왜 설교시간마다 장단지를 꼬집으며 졸지 않으려고 버텨야 하는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예배는 잘 견뎌내야 하는 한 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이 부딪쳐 공명(共鳴)이 일어나고 그 울림이 서로 공주(公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영광은 일주일 내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무디어지고 오염이 되고 더러워져 버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쳐도 더 이상 울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 강대상 뒤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가 끝나면 하늘로 가셨다가 다음 예배시간 10분전에 다시 내려와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존(實存)의 한 가운데, 내 마음 한복판에, 내 숨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난(깨어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치면 거기에서부터 은은한 파장이 일어나고, 예배당 안에 공명이 되고, 그리하여 예배시간은 신령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307)

말씀으로 만든 하늘빵이 정말 맛있어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시오.”(눅4:3) 사물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오직 신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을 만들겠다고도, 만들지 않겠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눅4:4)는 애매한 대답만 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탐식’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고 타락하였습니다. 먹음으로써 마귀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뿌린 타락의 씨를 이어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제’ 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승리합니다. 먹지 않음으로써 마귀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생명(新生)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이 육보다 차원이 높듯이, 하늘양식은 세상 양식보다 훨씬 맛있고 달콤하며 차원이 다른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양식을 제대로 맞본 사람은 세상 양식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오직 하늘양식 먹기를 사모합니다.(시104:15)

하늘양식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식탐’이 가득한 눈으로 날마다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오늘 나는 뭐 먹었네, 너는 뭐 먹었냐, 어디에 뭐가 맛있더라, 맛있더라 하면서 만나면 온통 먹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배가 부른 사람에겐, 이 세상의 음식은 시시하고 별볼일 없어서 관심도 없습니다. 먹을 것 찾아다니는데 쓰는 과도한 관심과 시간과 돈을 ‘하늘 빵’ 먹는데 쓰게 됩니다. (4309)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면 그 누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교회생활에 익숙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 우선 ‘성경’을 읽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읽지 말고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백독한다해도, 통째로 다 외운다 해도 성경의 ‘의도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대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목회나, 선교사나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는 일이라면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은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4310)

생명은 살(生)라는 명령(命)입니다

생명(生命)! 생명이 무엇일까요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생명은 살(生)라는 명령(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한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生)은 주고 받을 때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이 땅에 온 것은 풍성한 생을(生) 살려고 온 것이지, 도적질하고 구걸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는 관계를 잘하려고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내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 것을 다 주고 받을 것을 다 받을 때에 모두가 참 좋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주고받음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온전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온통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왜곡된 세상에서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살(生)라는 명령(命)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충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4311)

해리 포터를 보라!

한 목사님이 나를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비몽사몽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대표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설교시간에 그렇게 졸면 어떡합니까!”

“하이고 마... 목사님이 재워놓고 누구보고 야단인고? 드라마 반 만큼이라도 재밌게 설교해 보이소 누가 자나. 평생 들어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

나를 성경대로 원칙대로 설교를 잘 한다고 자부했던 목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녹음해 들어보니 과연, 설교가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설교가 어째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고...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 천국에 저금 많이 해라.’ 그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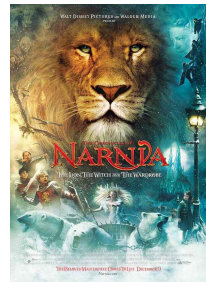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 그렇게 가야만 하는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환상적인 곳인지, 지옥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괴로운 곳 이기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지 - 그런 것입니다.

무슨 드라마가 맨날 “기대하시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일년 내내 예고편만 방송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성으로 상상을 차단하지 마시고, 성경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가서(想) 성경이 말하는 현장을 봐야(像)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 시대에 생생하고 리얼하게 살아납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런 ‘상상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버라이어티하고 환타스틱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만 붙잡고, 문고리만 분석하고, 문고리를 손에서 놓아버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봐야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에게 ‘해리 포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갔다하면서 벌어지는 현란한 환타지(fantasy)의 세상을 경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딱딱한 교리의 나무상자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천국과 지옥’을 가상(사이버) 속에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해리 포터’를 한번 읽어보시려나가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상상의 세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해리 포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50억부...이게 10년 동안 판매된 것이니, 성경을 능가하는 판매부수입니다. 근래 학생들 중에 해리포터를 안 읽은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얼마나 시시하고 존재감이 미미한 이야기일까요... 해리포터 안에는 ‘골리앗과 다윗’이야기보다 훨씬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4312) ©최용우





우리동네 패션쇼 /사진:최용우

신문 구독

중2인 밝은이가 종이로 된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도시에 살 때는 신문 3개 정도는 기본으로 봤는데, 시골로 이사온 이후로 우편으로 배달되는 신문은 하루 전날 신문이어서 구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안 본지가 한 참 되었네요.

우리나라의 전국대상 일간 신문을 보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주로 구독하는 독자층을 살펴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보수신문 - 조, 중, 동, 문 (국민소득 최상위, 최하위 그룹이 봄)
- *보수중도신문 - 국민, 서울, 세계 (구독하는 계층이 딱 정해져 있음)
- *중도신문 - 한국 (이것도 저것도 아님)
- *진보중도신문 - 경향 (지식인, 전문가 그룹이 주로 봄)
- *완전진보신문 - 한겨레 *오마이 (학생, 개혁성향, 사회불만이 많은)

중학교 2학년인 밝은이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한국’이나 약간 진보적인 ‘경향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여러 신문을 한꺼번에 모아 서 배달해주는 신문 보급소가 있는 것이 생각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일보를 배달을 안하고 경향신문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향신문

을 신청하였습니다. (만약 도시라면 자전거도 받고, 밥통도 받고, 별별 시은품을 다 받았지만 여기는 시골이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빛이 난다

아내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빛이 납니다. 컵이며 빈 그릇이 쌓여 있고, 밝은이가 먹다가 남긴 빵, 내가 흘린 커피자국이 말라 붙어 있는 부엌에 아내가 한번 쓱 지나가면 순식간에 럭셔리한 주방으로 변신하여 빛이 납니다.

수건과 벗어놓은 옷이 가득한 빨래 바구니,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슬리퍼, 가득찬 휴지, 어수선한 화장실에 아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순식간에 러브 하우스가 되어 빛이 납니다.

이무렇게나 쌓아놓은 쌀자루, 고구마 감자, 박스들 바구니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창고에 아내가 한번 출동을 하면 어느새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 줄을 맞추어 정리가 되고 창고에서 찬란한 빛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TTT

고치세?

칼바르트(Karl Barth)는 강단에 설 때는 한손엔 성경, 다른 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성경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말씀은 그냥 2천년 전에 쓰여진 고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시간은 ‘고전강좌 시간?’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신문’입니다. 신문에는 오늘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럼비, 총선, 뉴 아이패드, 탈핵 반핵 문제, 방송사 파업, FTA, 러시아총선.. 성경은 2012년 이런 현실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세상과 담쌓고 신앙 안에 묻혀서 안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특히 목회자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세상의 현실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누군가는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으로 현실을 해석해줘야 할 설교가 맨날 성경으로 성경만 해석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현실에서는 세상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교회안과 교회밖이 서로 다른 이중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전에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한손엔 성경을 한손엔 찬송을 들었는데 요즘엔 성경과 찬송가가 딱 붙어버려서 한손엔 성경을 한손엔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요.

목사님들은 한손엔 성경을 한손엔 주석을

“여보! 요즘 목회자들도 다 한손엔 성경을 한손엔 신문을 들고 당신만큼 현실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너무 오버하지 마셔. 지금 당신 흥분했어!”

“고래? 고래어? 그치... 나만 몰랐네...”

파하~

우리 식구들은 파를 싫어합니다. 어른이어서 차마 싫은 티를 내지 못해 그렇지 저도 파는 싫습니다. 전원일기 양촌리 회장 최불암 할아버지도 파가 싫어서 맨날 파하~

그런데 아내는 왜 그리 파김치를 잘 담그는지... 일년 내내 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화분에 파를 심어서 베란다에 들여놓고 하나씩 아껴가며 뽑아서 양념을 합니다.

파에는 칼슘과 비타민과 철분 등의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음식에 넣으면 파의 강한 향이 생선이나 해산물에서 나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음식 맛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파를 싫어하는 줄 어찌 알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 위에 파를 얹어서 ‘파닭치킨’을 개발해 냈을꼬... 파 싫다고 치킨을 안 먹을 수 없잖아 이거.



꽃을 닮은 삶

뒷산 일출봉 올라가려면 중간에 절집 마당을 지나갑니다. 비구니스님이 사는 작은 절인데 가만히 보면 절집 구석구석에 제법 많은 꽃들이 핍니다. 절집 마당에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뜰레뜰레 꽃을 찾습니다.

이맘때 쬐이면 산에 생강나무꽃이 진한 향기를 뿜으며 노랗게 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산객들이 산을 편하게 오르게 한다고 산길 주변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생강나무들도 모두 잘려나가버려서 올해는 생강나무 꽃을 맘껏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회색빛 겨울을 지나면서 꽃이 그리워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봅니다. 친구목사님 집에 갔다가 햇볕 잘 드는 거실 창가에 피어있는 이름모를 빨강 꽃을 보고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꽃이든 꽃은 소리 없이 핍니다. 내 삶도 소리 없이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 말을 하는 꽃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우이인숙최종은최백은

최고의 사랑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응감하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세상 한 평생 살면서 후회는 없어야죠.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련되고 능숙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은은한 삶의 향기도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며 살다보면
밝은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은연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깜빡 잊고 있는 일!

한 리포터 기자가 대도시의 변두리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너무 가난하여 다 낡은 옷과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따뜻한 옷과 좋은 음식을 갖다 주라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을텐데... 신은 정말 있는지 모르겠구나?” 잠시 생각하던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깜빡 잊어버린 것이겠지요.”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하지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뜻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과거 로마제국 귀족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귀족은 귀족의 자격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한국 교회는 ‘귀족’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온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한국교회가 귀족의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그 자격을 빼앗겨버릴 것만 같습니다.

©최용우



최용우가 만든 후보자료CD안내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살기로 전도하자!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2012년에 사용할 후보자료 이름은 ‘전도주보’입니다.

6년 전에 뭔가 획기적인 후보, 버리기에겐 너무 아까운 후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만든 후보가 ‘전도주보’였습니다. 후보를 한번만 보고 버리기에겐 후보 만드느라 들어간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후보를 전도지처럼 만들어 교회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 집에 가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5년이 지나다 보니 첫째 뱃도 모르고 만들었던 전도주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전도주보’를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사실 적당한 전도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전도지는 불신자들에게 외면 받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주보는 일부러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보편적이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확 드러내버렸고, 더불어 불신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글을 담았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보기만해도 행복해지는 사진과 함께 전도지를 받았을 때 첫 문구인 ‘예수 믿으세요’ 타이틀이 눈에 그냥 확 꽂히게 편집을 했습니다.

〈십자가 칼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원고지 한장짜리 아주 짧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햇별같은이야기 홈페이지에 매일 한편씩 16년동안 썼던 칼럼 중에 재미있고 긍정적이면서 한번쯤 자신을 돌아볼만 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전도지〉 매주 다른 내용의 전도지가 1년 52주 동안 나갑니다. 전도주보를 꾸준히 전해주기만 해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복음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창조의 세계〉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의 신비하고 신기한 여러가지 현상들과 동식물들의 이야기를 짚막하게 전해줍니다.

〈십계명〉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짚막한 인생의 십계명들을 정리했습니다.

1년 53주분 후보파일을 한글97과 한2007파일로 만들어 CD 한장에 담아 구워드립니다. 올에는 최소한 전국에서 1천교회 이상 전도주보를 사용하여 “무조건 전도하자! 죽기살기로 전도하자!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대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새신자가 넘쳐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요동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주보cd를 신청하세요. - cd 1장 가격은 3만원입니다.

(탐나는주보, 양육주보 cd도 있습니다.) 신청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31절기념 마라톤 잘 뛰고 왔습니다

3월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경기에 작은 딸 밝은이와 함께 참가하여 잘 뛰고 완주목걸이를 걸고 왔습니다. 몸은 친근만근 엄청 힘들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가 처음에는 내리막길이어서 갈 때는 좋았지만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면서는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와야 하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삼일절마라톤이라 마음속으로 류관순 누님을 생각하면서 필사의 각오로(?)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두두웅둥 둥둥

마라톤을 하면 뇌 속에 화학물질인 페닐틸라민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도전욕, 새로운 목표, 인간의 한계, 고비를 넘으면서 극기, 노력을 배우게 됩니다. 뇌 세포가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빠라지며,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고 성취감, 자부심,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걱정이 줄고, 활동적이 되며 어려운 문제들이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와—— 온갖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인 것 같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만큼 내면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도 드뭅니다.

but! 하지만, 마라톤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한 두번 뛰는 것이 아닌데도 펄 때마다 에이, 이제 마라톤 그만 해야지... 하면서도 마지막 피니쉬라인에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다음 대회를 생각하게 되니 참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이와 아내는 절대로 마라톤을 안할 것 같고... 밝은이는 도전정신이 강해서 아빠를 잘 따라다니며 제법 잘 뛰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마라톤 대회에 5번 참가하여 5번 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으~~~~!!

○ 실림 드러내기 -2012.3월 재정결산

복음(福音복된음성)을 전하는 방법은 소리(음성音聲)인데, 소리는 내는 소리(音)와 듣는 소리(聲)가 있습니다. 내는 소리는 들을 사람을 모아서 전하는 교회목회이고, 듣는 소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전하는 선교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음(音)사역자 이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성(聲)사역자입니다. 성(聲)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들어야 할 귀가 있는 곳으로 발이 부르짖도록

끊임없이 돌아 다녔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야 할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음성을 듣고 인터넷사역, 문서사역, 말씀사역, 기도사역, 손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교헌금을 부탁드립니다. 5만원, 10만원 단위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 (호칭 생략)

박종환 임주영 박신혜 오경아 한충희 소남숙 고승모 강문수 이훈희 김대철
박근식 김준경 김상식 장세화 강학기 실로암교회 구글 160673
총17분이 882923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신 분들의 정성을 가지고 햇별사역, 생활비, 나눔이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한달 최소 사역 비용은 약 150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역비는 책 판매 대금으로 보충하였습니다.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의 정성... 정말 감사 드립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개인문서선교지입니다.

*홈페이지 <http://cyw.pe.kr> 9191az@hanmail.net ☎ 041-866-5146 ■ 010-7162-3514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최용우

*339-835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53-3 (쑥티2길 5-7번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519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00.1.1창간)